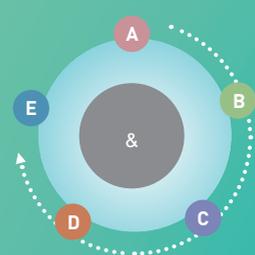


환경오염 없는 녹색 세상을 꿈꾼다

(주) 화인

(주)화인은 지난 2005년 에너지사업 부분 등이 기존 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현재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군포에서 만난 에너지 사업본부 심규정 부사장을 통해 들은 화인의 ESCO 사업에 대한 의지는 남달랐다. 오늘 보다 더 나은 ESCO의 장밋빛 내일을 향해 오늘도 땀 흘리고 있는 (주)화인을 찾았다. 취재 편집실





(주)화인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으뜸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량 ESCO 기업이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내세우는 기업

현재 ESCO 시장에서 등록된 기업은 150개 정도이지만, (주)화인처럼 전기, 설비, 조명, 환경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ESCO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주)화인은 1994년 회사를 설립, 1999년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2005년 에너지사업부만 별도법인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군포에 위치한 본사는 고효율기자재 연구개발, LED 등의 생활조명 관련 제조, 에너지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 영등포에 에너지사업 영업 및 디자인 설계파트, 대방동에 건설사업본부 및 환경사업 파트를 담당하는 지사가 있다.

(주)화인의 사업분야를 3가지로 분류하자면, 에너지, 환경, 고효율 미래조명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주)화인이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 사업은 다시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건물과 소외된 중소 산업체의 에너지를 진단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에너지진단·컨설팅, 둘째, 열 및 전기분야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개체등으로 구분되는 에너지절약사업(ESCO), 셋째,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이다.

또한 건설·환경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플랜트 설비 및 기타 건설, 오염된 토양 및 수질에 대한 복원, 평가 및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는 친환경 사업도 (주)화인의 자랑 중에 하나이다. 또한 생활·산업조명, 경관조명, LED조명 등 미래 조명사업에서도 고효율 장수명 제품의 기술개발 및 제조에 힘쓰고 있는 (주)화인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으뜸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량 ESCO 기업이다.

에너지 절약이 기본 사업 목표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절감하여 미약하나마 국가시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에너지와 환경은 서로의 꼬리말처럼 항상 같이 거론되기 마련이죠. 에너지를 줄이는 것 즉 CO₂의 절감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며, 오염된 토양과 수질을 복원하는 것은 환경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라는 심규정 부사장의 말에서 에너지와 환경 개선에 대한 남다른 포부가 느껴진다.

(주)화인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마침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추진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어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어느 하나의 사업 부분만을 가지고 각자 따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의 복합적인 시스템과 궁극적으로는 환경과도 연결되는 종합적·체계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 (주)화인의 사업 정책이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력은 모두 갖추었습니다. 영업력이 최대 관건인데, 이 부분이야말로 클라이언트를 설득시켜야 하는 분야로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저희만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폭넓은 영업에 주력하고 있기에 요즘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름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화된 영업력이야말로 (주)화인만의 특화된 강점이라 할 수 있죠.”

ESCO 사업이야말로 남다른 기술영업력을 요하는 사업 분야인데, (주)화인의 현재 모습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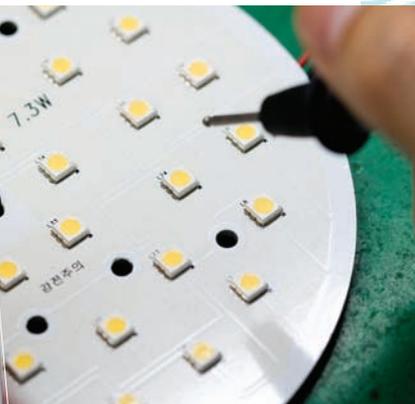
ESCO 사업 시작 후 (주)화인은 매출이 증가하고 이 분야에서는 여느 기업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것이 사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주)화인에서 공사한 정선군 가로등은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미 뉴스에 방영되었을 정도로 주목 받기도 했다. 정선군 사북읍 외곽도로에서 황색 빛을 내는 메탈등과 나트륨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최신형 램프로 바꾸는 작업이었는데, 47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대대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이 결과 전력소비가 60%가량 줄어들어 전기요금도 크게 절약되었으며 에너지 절약에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주변의 이목을 끌었다. (주)화인은 정선에 지사를 세워 그 지역 인원을 3명 두고 A/S에서 시스템 점검까지 꼼꼼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6년 동안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ESCO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으며 사후관리를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심규정 부사장은 조명 분야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적인 생각과 시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예를 들어 야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경관조명의 설치의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반하는 어찌보면 사치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야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국가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그때그때 신중하되,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왕



기술력을 기반으로 폭넓은 영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화인만의 특화된 강점이다.





에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가 이익이라는 판단을 했다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라는 점이죠.”

전력을 많이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현실적 가치판단에 의해 기존의 에너지를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그의 말 속에 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ESCO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우리나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ESCO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정책자금에서 지원되었다가 현재는 지원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기타의 에너지절약 품목의 경우는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수요는 있으나 애써 회피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관공서 외의 일반 사기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이 힘든 것 또한 ESCO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이다. 게다가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이자와 환율은 ESCO 시장의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ESCO 사업이 무척 유망하고 긍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ESCO기업들이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자들 또한 막연하게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오해로 인하여 ESCO사업을 살가운 눈으로 보질 않는 것도 문제이다.

“매달 나가는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여 그 차액분으로 매월 공사대금을 분할상환하고 상황이 끝나면 그 시점부터는 에너지 사용자의 실제적인 이윤이 발생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논리들을 많은 에너지 사용자들은 쉽게 믿으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이 절실하죠.”라며 현재 ESCO 시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심규정 부사장은 ESCO 사업이야말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해줄 중요한 사업 분야의 하나임을 확신했다.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ESCO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청정한 무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화석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주)화인. 이들이 꿈꾸는 녹색 지구가 곧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